朝鮮日報
朝刊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臨時議會의 召集說

一

今番關西風水害의復舊對策을 爲하야 緊急히臨時議會를召集 할것이라고 他方面으로부터도 主唱되야잇지안한것은 아니로 되며옥이政府部內에서 그必要 가高調되야 各閣僚가 全部同 意를表하는터로 後藤內相의歸 京을기다려 곳그準備에着手하 리라고한다。勿論關西는日本商 工業上重要地帶요 또今番의風 水害는 그程度가甚大한만큼 臨 時議會를召集하야 復舊對策을 決定한다는것이 決코無理가아 니겟지만 지금定期議會가 數朔 압헤남지안한는데 臨時議會 를서둘도록되는것도 一種의疑 問點이요또前番議會에잇서米穀 對策의樹立을口實로 臨時議會 召集의豫約을行한政黨方面 그 中에도政友에서는 그다지熱心 을보이지안는데 政府部內에서 도리어熱心으로 主張하는것도 一種의疑問點이다。아니우리는 이두가지의疑問으로부터 消極 하야 새로운한事實을發見할수 잇다。그는곳이지음에잇서臨時 議會를召集하는것이 한편으로 關西風水害의復舊對策을爲하는 것이라고하야 召集理由가妥當 한 對策이아니라 다른한편으로 政 友會의反政府的策動을 미리挫 折시키는同時 來定期議會로하 야금 順調로운進行을 피하기 爲하야 絕好의機會를이루는것 이다。

二

國策審議會에對한 鈴木總裁 의聲明으로써 政友會의反政府 的態度는 아조明瞭히 들어 낫고 鈴木久原兩派의 協調的 氣運이 漸次濃厚한터로 政友 會內의 大勢가 그態度의支持 로기울어잇다。아모리政黨의勢 力이 衰微한오늘이라고 하더 라도 議會의絕對多數를 占領 한政友會가 反政府로 나가는 것은 現內閣의한難關이아니될 수업슬뿐이아니라 米穀對策과 在滿機構改革에 關한 問題等 複雜한 問題를노코 來議會에 잇서 政友會가對政府的 一戰 을 반듯이꾀하게될것인즉 現 內閣으로서는 미리부터 그對 抗의方略을 要하는바엄지안타 그래서 床次氏以下 山崎內田 兩氏等이點에對하야 恒常不絕 한關心을 가지고잇다고보인다 床次氏가 政友會로부터 그의 徒黨을 끌어내지안코 그대로 머물러두는것도 結局다음의有 利한機會를기다려서 政友會分裂 의內應을삼고자하는데 지나지 안는것이다。그러나鈴木、久原 兩氏의警戒를 깨트리기前當分 間床次氏의 힘으로 政友會를 分裂시키는 困難한일이아닐 까。來定期議會에 臨하야 現 內閣과政友會의一戰은 암만하 야도 避치 못할것이아니겟는가

三

그러자關西의 風水害가 일 어나고 一部로부터 臨時議會 의召集要求가 들리어왓다。이 機會에 臨時議會를열어 關西 의風水害對策을 主議題로삼고 米穀對策과 在滿機構改革等도 附議上程시킨다면 政友會로서 는紛糾할狀態를 만히일허버리 지아니치못하고 現內閣으로서 는 오히려觸處잇는 行動으로 一般의信賴는 엇게될는지모르 다。이와가튼見解는 반듯이 헛된推測만이아니니 그것은臨 時議會의議題로 解하는바에米 穀對策과 在滿機構改革에關한 問題가들어잇는것과 救濟出身 關係도부터 臨時議會를 熱烈 히主張하고잇는것이 스스로證 明하는바다。그러면에 關西의 風水害가 일어나기前에도米穀 對策樹立의臨時議會를召集치안 햇는가모르나米穀對 策을主議題로臨時議會를 召集 하는것은반듯시 現內閣의有利 한地位를意味한다고 볼수업는 바이다。또그러나 來定期議 會에서는 來年度의豫算案을決 定하게될것으로 政友會에서도 豫算案을거슬리어 對政府戰을도 모할수잇지안하다고 말할지모 르나 軍事費中心의非常時的豫 算을가지고는 政友會에서도別 다른異議를 부르짓지못하리라 고 보는까닭이다。現內閣의이 와가튼態度이 果然的中하다안 하다는 아지못하는일이다。오 즉現內閣으로서 臨時議會를召 集하려는眞意에는 이와가튼 裏面이숨어잇는것을 볼수잇다。

米海軍省、太平洋 編隊飛行計畫!

眞珠灣에서미드웨이島까지

明年一月以降斷行

【산자고二十七日發聯合】桑港布哇間 編隊長距離飛行에對하야 成功을 한米國海軍은一九三五年一月以降 카리비아海及 太平洋上에 編隊長距離飛行을 決行키로 決定하엿는데 산차고 海軍航空隊根據地司令츠은 少將은 二十六日右飛行計畫을 如左히發表하엿다

카리비아海訪問計畫은코코소로 根據地를基準으로海上을 一週하는데잇스나 太平洋上의 飛行은 空中四個中隊를 動員하야 眞珠灣으로 부터단번에미드웨이까지約 一千哩를 翔破하는 壯擧로서 右飛行에成功하면米國海軍의 前哨基地는 布哇群島에서 다시千哩、太平洋上에 進出되게될것이다

同飛行計畫內容은如左하다

一、코코소로根據地巡邏航空隊 三個中隊는一九三五年一月編隊로써 카리비아一週飛行을 決行하야沿岸各地를一巡한後 根據地에歸還한다

一、카리비아飛行直後空軍四個 中隊는眞珠灣을出發하야 布哇를一週한後太平洋을橫斷하 야 미드웨이에向하야編隊飛 行을敢行한다

內務省對議會策 提案項目을決定

被害調査豫算査定等事務關係로 十一月初旬召集困難

【東京電話聯合】內務省에서는二十七日 午後一時十五分부터內相官邸에서 省議를열고後藤內相以下 大森丹羽兩次官赤木社會局長等 參集下에來臨時議會에提出할 復舊救濟計畫豫算案에關하야 協議하엿는데今回의臨時議會에서는 關西地方의風水害를主로、西國九州의旱害、北陸의 水害、東北의冷害對策도한께 提案하야될수잇는대로全面的救濟를 行키로하야 如左한項目을決定하고 그準備로計數的乃至事務的協議를 行하엿다 內務省 事務的立場으로는被害調査復舊費의 豫想額決定까지에는 內務省의査定、大藏省과의折衝關係로 相當日數를要할터로特히 今番關西地方의風水害에關하야는 區域이廣汎하야各地方廳의 調査도아직안된곳이만허內務省에 報告한곳은하나도업고 또復舊費의豫算査定에關하여는 晝夜兼行하드라도一個月以上걸릴뿐만아니라 다시大藏省과의 折衝期間을 考慮하면 十月下旬이나 又는十一月上旬까지에 臨時議會를召集하기는 事務的으로 不可能하다고 보이며 十一月中旬은大演習이잇슴으로 結局十一月下旬까지 遷延되게될터인데이를政治的立場으로볼때는 人心을安定키爲하야 拙速主義가主張되고잇다

◇土木局

一、關西方面의風水害對策

災害復舊費

直轄工事被害復舊費

◇社會局

罹災者中孤獨者에對한社會政策 救護事業被害住宅復舊費

資金融通

◇神社局

神社被害의復舊費

◇衛生局

防疫費

我黨主張에符合하는限 現內閣援助를不惜

民政黨全國支部會議席上에서 若槻總裁의演說要旨

【東京電話聯合】今日에開催된民政黨全國 支部長會議에 잇서若槻總裁의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現內閣은 憲法政治의 運用으로서中正公明한 政治를行할根本方針으로 曩者所謂十大政綱 을發表하엿는데 그것은大體로 我黨의主張과 符節을가티하는 것이다 今後에도 同內閣의 主張으로我黨의 本領에背馳되 지안코我黨의 主張에어긋나지 안는限我黨은現內閣에 對하야 援助를不惜하는바이다 我等은 現內閣이 이미發表한政綱을具 現하야時艱을 克服하고內外重 大時局에善處하야 어긋나지안 키를翼望하는바이다 現下國家 內外의 諸政에잇서 가장憂慮 으로되여잇는 各種不安에對하 여도中正의途를 把持하고人心 의逸脫을矯正할것은 勿論特히 窮迫되는農村問題에 對하여는將 來의根本對策을 確立하야徹底 的으로解決을期하지안으면안되 다衆議院에多數를가진 政友會 는黨議로써岡田首相에게 黨員 의入閣을拒否하고 此에反對態 度를 表示한줄로안다 이結果 我國의 政情安定을缺하게되고 來議會가 開會되면 政界의前 途는 豫測할수업는 難關이潛 在하고잇다 適當히處하야國家 의 責務를 負치안으면안될다

最高價格으로 政府米拂下申請

標準米三十圓臺突破

【電通東京電話】最近米價의 暴騰은 天井不知로 二十七日의 大阪、神戶正米市場은 標準米三十圓을 突破케되야 銘柄에依하여는 이미米穀統制法의 最高價格을 突破한것도잇 서 大阪、名古屋兩米穀事務所에對하야 最高價格에依하야 政府米拂下申請이 들어왓다 本省에서는 이報告에基하야 如左히 發表하엿다

大阪 五百俵

名古屋 一萬五千四百二十九俵

計 一萬五千九百二十九俵

現下情勢에鑑하야 臨議召集不可避

後藤內相의災害地視察實情聽取코 床次遞信大臣談

【東京電話聯合】床次遞相은 四閣僚會議散會後左와如히말하 엿다

今月後藤內相이災害地 를視察한實情을聽取하엿는데 其被害가甚大한데驚愕하엿다 이에應急策에 對하여는 一日 이라도속히實施할수업슴으로今 日會合하야 主로應急對策에 關에對하야協議하엿스나 勿 論臨時議會召集問題에關하여 는何等決定이업스나 그러나 現下의情勢로보아 結局臨時 議會를召集하지안으면안되리 라고생각한다

臨時議會의 提案은限定

【電通東京電話】臨時議會召 集에關하여는 二十八日定例閣 議에서決定하기로되엿는데 其 臨時의提案項目은

一、近畿及中國의風水害

一、九州、四國地方의旱害

一、北陸地方의水害

一、東北地方의冷害

等에依한 凶作及災地의諸對策 에豫定하고그時期는 大體十一 月上旬頃으로 會期는一週間乃 至十日로할模樣이다

全國高等官以上 月給百分之一醵金

【東京電話聯合】二十七日定 例次官會議에서 丹羽內務、長 瀨林、岡次官으로 今回風水 害의慘狀에關한 報告가잇 는바種種協議한 結果、高等官 以上의 全國官吏全部는 俸給 月額의 百分之一을 醵出하야 義捐金으로 災害地에 보내기로 決定하고 곳全國官廳에 通達하 게되엿다

政府所有淺水米 賣渡키로決定

【電通東京電話】農林省發表 今回의 風水害에依하야大阪 及神戶에서 생긴政府所有浸 水米를 左記와如히 賣却하 기로決定하엿다

一、賣却米의種類

昭和七、八年產의日本內地玄 米及 昭和八年產의 朝鮮玄 米로함

二、賣却數量

目下確定하기어려우나 每日 乾燥되는대로 相當한數量을 모아賣却함

三、賣却方法

入札의 方法에依하야 申請 價格의高下 順에依하야賣却 함

四、保證金

一俵에關하야 五十錢以上으 로함

五、其他詳細事項은 該米穀 事務所에서 紹介함

駐日滿公使更迭

後任은謝事務長

【新京二十七日發】駐日公使丁士源氏는 病으로因하야 부터辭意를表明하엿는데 政府는 丁公使의意向을 容하야 更迭키로決定하엿다 後任公使는 現參天府長 謝介石氏로內定되엿다

米蘇債務交涉 折衝再開

루大統領言明

【電通華盛頓二十六日發】停頓되여잇든 米蘇債務交涉의 再次折衝을 開催하게되엿다고 二十六日에 言明하엿다 交涉은 進行되리라고 言明하엿다

金本位뿔럭諸國 互相利益擁護會議

十月二十七日白國首都에서 白耳義藏相言明

【電通寿府二十六日發】金本 位國의互助協定에參加한白耳義 代表자스파藏相은 二十六日주 네브로부터 歸國하고歸來하야 左와如히言明하엿다

金本位뿔럭諸國은其相互的利 益의確保擁護를期하기爲하야 來十月二十日白國首都에集合하 야會議를開하기로決定하엿다

駐中伊公使館 大使館으로昇格

【電通羅馬二十六日發】伊太 利政府는二十六日駐中公使館을 大使館으로 昇格식히기로되엿 다고 正式發表하엿다

大使館昇格은 飛行機賣却代償

【電通上海二十七日發】今回 發表된伊太利의 駐中公使館의 大使館昇格은 中國官民을깃 부게하엿는데 當地外交界方面 消息에依하면 右前任公使피아 노氏의在任中에經濟委員會委員 長宋子文氏와의 사이에圓滿히 成立되야 伊太利는右代價으로 飛行機賣渡의 利權을獲得한것 이라한다 大使토스카리氏及 西班牙公使劉 文島氏가 各各昇格되야 伊中兩 國政府는 明二十八日南京과羅 馬에서右에關한 協定을發表하 야兩國親善을强調할터이다

中小商工業復興 資金支出을陳情

近畿商議聯合代表

【電通東京電話】近畿商工會 議所聯合會 代表者十餘名은廿 六日大阪에서 開催된 緊急協 議會의決議를가지고 廿七日午 前十一時商工省에 町田商相을 訪問하고 風水害로因한 中小 商工復興資金으로 一億圓을支 出하여달라는 要望을陳情하엿다 그리고 町田商相은 後藤內相 報告에基하야廿八日夜九時廿五 分 發列車로 西下하야現地의 商工業被害實狀을 視察한後來 十月二日定例閣議에 맛도록歸 東하기로되엿다

滿鐵、北鐵合倂 大鐵道會社設立

【大連二十七日發聯合】讓渡 成立後의 北鐵經營方針에關하 여는 벌서부터滿鐵首腦部와滿 洲國政府間에 內內協議中이데 滿洲國은 滿鐵에經營을 委任하 야 結局交通機關 一元化의根 本方針에依하야 滿鐵을擴大하 야 全滿地區에 亘한大鐵道會 社를 設立키로 大體意見이一 致된模樣이다 右滿鐵의擴大强 化는 鐵道의能率增進上絕對必 要케되엿슴으로 早晩間滿鐵의 根本的改組가實現되게될것이다

北鐵交涉諒解成立 赤系露人에大衝動

【哈爾賓二十六日發聯合】北 鐵蘇聯首腦部는 從來赤系鐵道 從業員에對하야北鐵交涉은 容 易히成立할것이안이라 또蘇聯 政府는 輕輕히北鐵를내여노흘 意向은업다고 自國民의動搖를 極力鎭撫하고잇섯는데 最近에 이르러 從來의態度를一變하야 機會잇는대로 婉曲히北鐵交涉 成立에接近하고잇슴을 暗示하 면서人心의安定을 企圖하고잇 는데 同交涉이急轉直下的으로 再開되여 原則的協議成立의報 道는 北滿蘇聯國民에게 多大 한衝動을주엇다 向背는 가장重大視되여잇는데 蘇聯首腦部인 쿠즈네초프、루데 兩氏는 二十六日午後 蘇聯總 領事館에 第一回對策會議를開 하고協議하고잇는데 今後連日 會議를繼開하고 其結果에基하 야副理事長쿠즈네초프氏는 近 近渡東하야 現地의狀況報告를 行하야 東京會商의解決에資케 할模樣이다

從業員處置로 蘇聯首腦部協議

【電通哈爾賓二十六日發】北 鐵讓渡交涉成立後 蘇聯從業員 五千八百二十余名의 處置에 對

夕刊後의市況 廿七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八八五〇	(三〇低)
鉱新	一三五三〇	(二〇低)
日直	一一九二〇	(二〇低)
東新	一四〇〇〇	(三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四九九〇〇	先限 五〇三〇〇

藏井	人絹	後引
當限	九一八〇	先限 八七〇〇

忠武遺蹟 (15)

環東土公無儔

史上의人物과忠武公 擱筆하면서

安在鴻

長山列島의附近을지나 木浦 에들어오는길은 두時間이다못 걸린다 우리배는午때겨지하여 左右의늘어안즌 섬사이를지나 船艙이좁총히 선木浦港에 들어 왓다 이날에群山行汽船을고처 타고 西多島海의絕景을 마저 보려하엿스나 船室이답답한탓 으로 猝然罷意하고 湖南鐵道 로해서 羅州에서一宿하야 知 友朴準三氏의 款接을바기면서 翌朝에 忽忽히 돌어왓다 華 陽洞과 俗離山을避함을 시작한 지前後三十五日이다 木浦의景 勝은 자못非凡하야 馬山 元 山과아울러 朝鮮三景으로따지 는者잇스니 世間에 퍽히알려진터이라

木浦港에다들어와서 高和島의 적은섬이잇스니 壬辰五月 宣 祖西으로播遷함에 公이따로 히白米五百餘斛을이섬에 싸허 두며『環上이萬一鴨水에서困하 시면 내一맛당히龍舟를召을고 바다에떠서 써大駕를마지하야 하늘이만일도으시면可히恢復을 期할것이라』고 하든바이니 肅 宗 景宗의代에 業軒趙泰考、그 記蹟碑를짓고 藥泉南九萬이 써서 이리니 黨爭의餘沫이 公의遺 跡에까지뒤퍼 一派의사람에게 破碎된바이오 鄕土의群衆들은 오즉 忠武公의勝戰碑라고傳하 는者이다◇

公의人物은 내이미本文首頭 에서 그古英雄新認識을 論한 바이지만 이제그特出한者만例 論키로한다 公이李綱을論한데 서 스스로그志를보엿스니李綱 은먼저靖康의亂을치르고 뒤에 는宋高宗을 南渡한뒤에相하야 크게匡復하려한바잇섯스나 實 現되지못하엿고 宋의天下는金 人의 마음껏짓밟음에 맛겨젓섯 다 岳武穆飛가 가장公의敬慕하 가튼者이니 어이를일러 孝하 고 平居에姬侍가업슴이 公의 平常과갓고 그의主上背叛 豈 大將安樂時耶」가 公의嚴嚴精忠 과갓고「文臣不愛錢 武臣不惜死 天下太平矣」를

指呼間에바서지고 河北의州郡 도 旦夕에掌握되엿것이러니 그 가불려가매 大軍이敗衄하고北 方州郡이 모두金에게制服된은 도公의一進一退와 그影響이 똑가튼者이다 公에關한大樹의 꿈은 文天祥의擎天夢그대로이 매 公의閑山島노래와 古今島 詩와 盟山誓海의劍銘과 萬壑 風雨夜 秋秋不寐時 國勢 人無任轉危 經年防備策 作聖君歡하는詩가 文天祥의正 氣歌와 그高低를알겟슬바이다 다만至世界를 그侵略의불로째 워다(盡)하든蒙古人의兵馬가畢 竟宋朝天下로 崖山의大悲歌를 자어내게하엿스니 漸漸에주고 말은 文天祥의精忠大節은 그 뒤끗이 促急하고 悲痛함이公 에게도比할수업는者이다◇

의詩이오 長號一聲 保障誰托 痛結幽明 云何其呼는 宣祖의 誄詞이오 忍戰五丈 鳴呼諸葛 은 正祖의祭文이다

異敗存亡을그대로 表顯하는者 이엇스나『諸葛亮有王佐之才』라 는宋儒들의推稱과 三國演義의 民衆的鼓吹가 그를神人化한點 에서 오히려五六分誇張된바이 니 그가一國의君民을 그絕代 信從식임에두고 全領的力量을 集中하야 難局을開拓하려하되 때로오히려敗衄이잇섯스니 公 이海陬數州의偏師로서 바다에 넘는大軍을 擊破하고 捷制使 가된後에도沿海各官諸將

부치고 三道各浦에서 二百五 十隻의戰船을製造하야 그兵力 을擴充하고 한번積極攻勢로나 가보려하되 마음내여 뜨을수업 섯슴에比하면諸葛의才와略이公 에지날수업는바이며『兵라잡기』 의『비슨』이 東西海戰의勇名을 獨專치한것갓고 東鄕平八郎이 또東方現代의海戰의聖將으로尊 崇되는터이지만 前者는 百年 戰爭以來 英國과對立關係인佛 에對하야『윌리암·피트』의 名 宰相이 擧國一致의大力量으 로 써『엘리사벳』以來의隆盛한國 運을들어 그最善한策應을하든 터이오 後者도한이에지지안는 幸運된境遇이엇섯다 그럼으로 『넬손』이 멀리公에比할수업고 東鄕氏도한 그와가튼분이다 그陳隣을주물러 手下에屈服 케하고 要時間의好運을 保하여 속음이업슴가튼것은『카부르』 가外交論會에 臨한것과 所謂 明見萬里의 神機妙算이란者公 에게 合致한者이며 그의經濟 行政 製作 實運의功을合할진 대 公은 다만海上常勝의名將

뿐이아니오 實로 人類史上 稀 然히빗나는 具全한 經世家요 政治家요 軍略家며軍政家요行 政家요 外交에熟練하고 創作 에빼어난 文武兼全、才德兼具 한大偉人이라 西崖柳成龍이 그의戰歿을 슬퍼하여 『有才無命、百不一施』而死 鳴 呼惜哉」라고한것은 實로公의 知己인 西崖柳公인後에비로소 이말이잇슴者이라。公이어찌 만 朝鮮의자랑일뿐이랴?公이 仁宗乙巳三月八日에 漢城府乾 川洞에서나고 宣祖戊戌十一月 十九日새벽 南海郡露梁觀音浦 에서 戰歿하시니 享年이五十 四歲이라 『有才無命百不一施』가 어찌 痛惜할바아니냐? 時局이방구 이고 形勢는全혀달럿스되 公 의人格 功烈 및그衝天의意氣 는 오히려萬世에살어잇슴者이 다 (寫眞은 忠愍祠)(續)

正誤 昨日本文末尾 내누를 맛어 『몰아갈쪼』의誤植 外 他數字의誤字는 正誤를略함

頭腦의攝生은 이러케말심합니다

畑耕一先生 淺原六郞先生 大宅壯一先生

『はれやか』와나

小說家 畑耕一先生

이一年間이란것은나는스활후에 疲憊했다。 睡眠以外의일에너무關係한疲勞도잇스나睡眠不 足과興奮하는 大端히나를 頭痛、胃腸病에苦惱하게하얏다。 이런生活方法으로 는重要한創作生活은할수업는 것이다。그리하야 한두가지일外에는그만두엇다。 元氣를恢復하고 心身을安靜히하야 健康을잡고십헛다。 맛침그때『はれやか』를入手하얏다。只今까지 나는이런種類의藥은 實驗되면全部試用하엿다하 여도조흘만큼 마니여보앗다 그러나實際의 藥만 큼나를爽快케한것은업섯다。나는副作用이업는

毎日寢床에서 向하야 다시服用하엿다 大端조왓 다。頭腦가明快하고身體의어느部分으로一服의活 氣가나와서 感謝하엿다 이대로 過去一年間의疲勞 를回復할수가잇섯다 粉末임으로먹기어렵지나 오生覺하엿더니 저은봉 로꿀떡넘어간다。 잇다고 生覺한다。 나는明日에도 다시 試驗에 쓸려고 의試驗工夫를生覺한다。 그럼으로 君에도勸하고십다。

카라엘과漱石先生

小說家 淺原六朗先生

카라엘이、언제나不健으로頑固老人이란것은 胃腸이납버서그러타는說이잇다。그리하야이것 은、夏目漱石先生이臨筆中에쓰러젓다。漱石도갓치 胃腸이납부고、晩年에는胃潰瘍으로죽어바렷스 나漱石은꼭生前에自己가弱한것은카라엘과갓치 胃腸關係라고生覺하야、그러케自己周圍나自己 의게辯明한것이안인가生覺한다。

作家生活은언제나生活이不規則하야運動不足 으로、胃腸이납버지고、따라서머리가무겁고、 心身不快를늣긴다。

『はれやか』는友人이가저왓슴으로、二三月連 用하야、胃腸과머리에甚히조흔것을알엇다。妻 子도最近頭痛이甚함으로、이것을먹엿더니 『大端조타』 말하얏다 胃腸이조코머리가 조와진것갓치 조흔것은 업다。

『はれやか』가잇섯스면카라엘도漱石도心身이 明快하엿슬지도몰은다。

頭腦朦朧이晴快

評論家 大宅壯一先生

今日社會에서生活하고잇슴으로、多少間神經 衰弱에걸려잇슴은、全部라하야도조탕 特히 靑 年에서壯年되기까지症狀이더욱甚하다。이것은 이年齡層에生活의刺戟과責務여第一强한關係이 다。

집을나와서 온終日騷音中에서헤매고단이다가 도라온때、神經衰弱이안되면、안되는것이도리 허우서운일이라고生覺한은우리文筆業者뿐만안 이다。안이別로外出안코집에가만히잇드라도新 聞의社會面을읽는것만으로도神經이相當히疲勞 할것에틀림업다。이것은都會人뿐이어안이다。나 는늘地方에旅行하야淳朴한農村人들이神經衰弱 에들이업는보는것은본다。

나自身의神經衰弱史도生覺하면 相當히오래 다。中學四年때에라經驗하나、只今도徹夜하면 머리가특히지고바늘로쑤시는것갓흔일이더를때 는더욱甚하다。

그런데、偶然한機會에、最近新發賣한『はれ やか』를愛用하게되면서 緊張히머리의害이前보 한것이快晴이되야、急한일로徹夜를하드라도翌 에一服하야눕잇斗、散蘇되고疲勞가前에 남지안는다。그럼으로나는新茶(はれやか)를 愛하야 다。

附記

머리를明快하게가지고십다。記 憶力을더하고십다 아무리無理하 드래도疲勞안하고십다。이것은 아마萬人이願하는바라는 늣긴바나 엇지하면조케되는가하는方法과 그에應할藥이只今까지업섯습니 가。

但只잇는것은、頭痛날時、齒 痛날時그를一時止痛식히는것이 大部分으로서、더구나鎭痛劑의 大部分은아스페린系藥劑의主成 品인故로、連服하지면胃腸을傷 식히고、胃腸뿐만안이라머리까 지害毒을줌이不少함으로부터서운 것뿐에限하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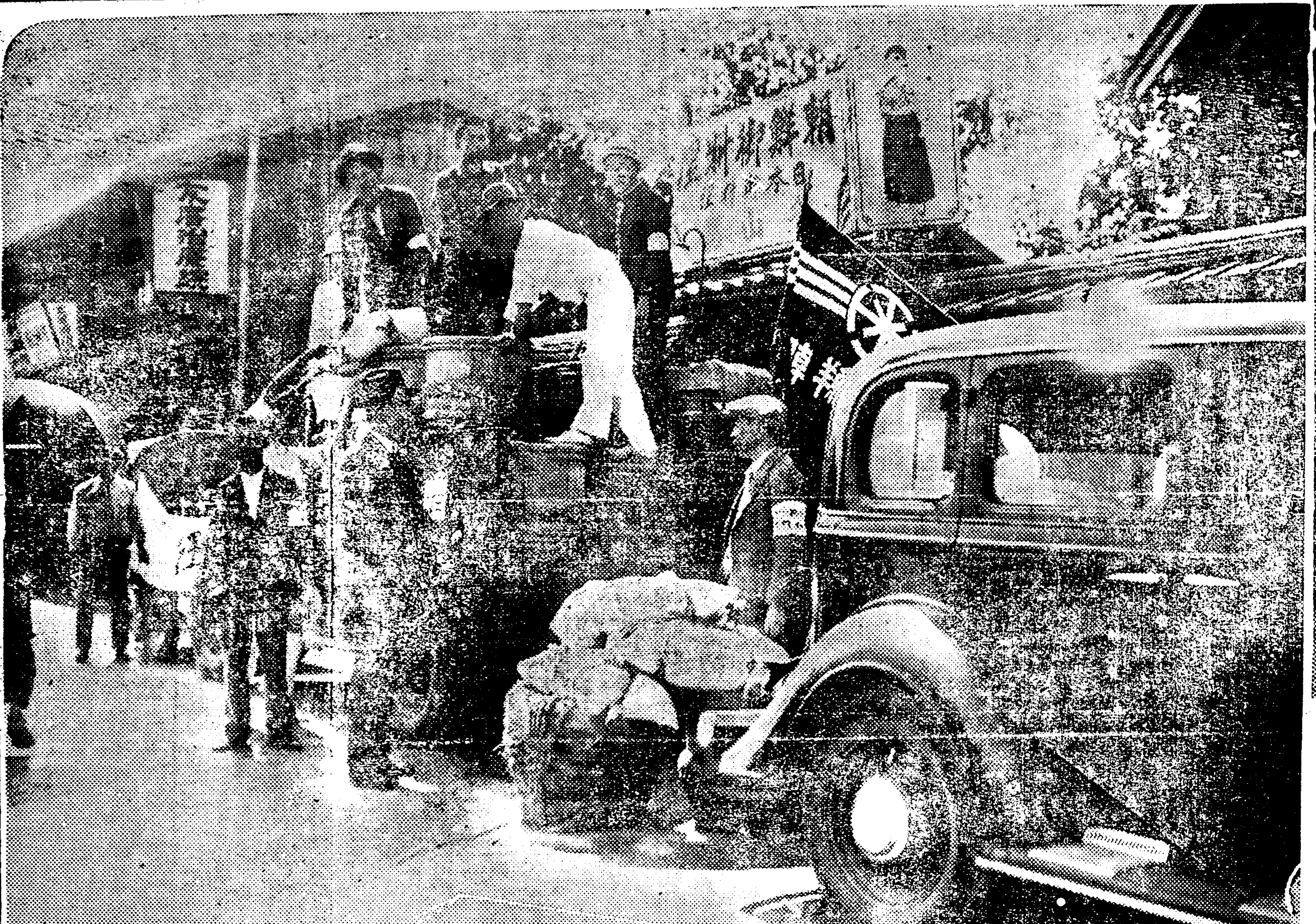
그런바今般비로소副作用업슴 은勿論、腦神經衰弱에特効하고 또胃腸을튼튼히하는機能을發한 新頭痛疲勞回復劑『はれやか』가 日獨藥化學研究所의苦心으로發 明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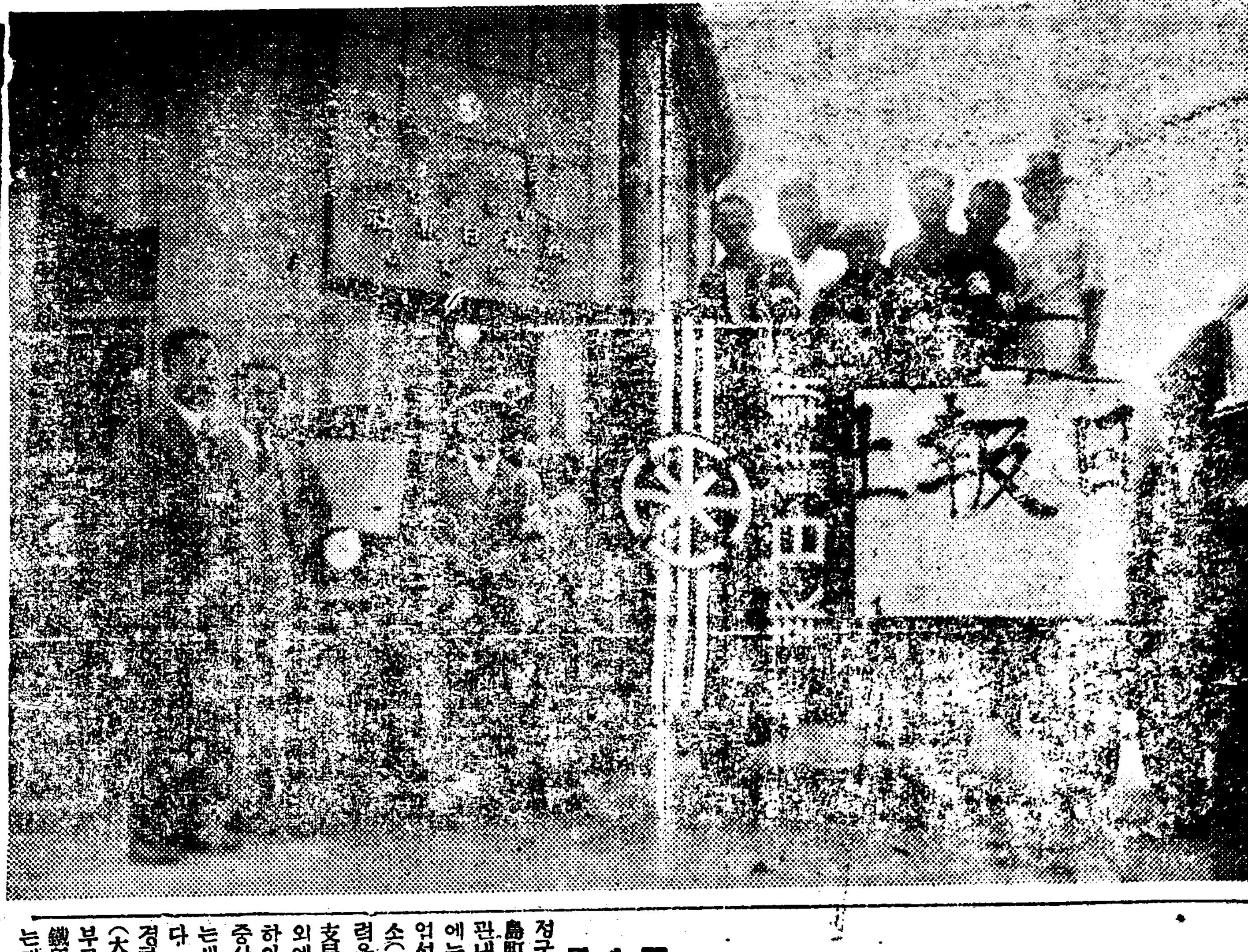
이藥은腦神經의明晰度에健胃 强壯의成分을巧妙히結合식힌新 方劑로頭痛齒痛其他腦症狀을治 療식히고、또連用하면腦細胞를 活潑시켜疲勞에對한抵抗力을增加 하고、綜合作用을가저서、從來 의頭痛藥에업는全然作用을 達이하는特長을가지고잇다。

그 主効는

頭痛、齒痛、神經痛、不眠症 宿醉、疲勞恢復、神經衰弱 히스테리 『はれやか』賣價는 三十錠五十錢一圓二圓三圓五 圓 各藥店에잇 發注文은京城本町一ノ七日獨藥化學研究所 (振替東京八〇九四番)

試用藥 文獻 無代進呈
健胃鎭痛의 効를兼한 新頭痛疲勞回復劑
腦朦朧記憶力減退頭痛에『はれやか』가
頭痛의藥効가잇는가를實際로試驗해주시
사고業書로左記에請하시면試供藥文獻
을無代急送합니다
京城府大和町 新井藥房





壞瓦覆棟下悲劇猶存 死者五十名又復判明

警察調査도 慘禍의 全貌不明

我社調査班災地서 奮鬪

大阪에서 特派員 洪鍾仁電話

【廾七日 午後九時卅分大阪에서本社特派員洪鍾仁電話】 대판대정구남혜가도정(大正區南惠加島町)천미경찰서(泉尾警察署) 관내에서는 그동안까지의 조사에는 조선사람의 사망은한명도 업섯는데 이십칠일에 대판제철소(大阪製鐵所)측과주민들이협력을어더 우리(洪特派員과大阪支局員)가 실지조사를한결과의외에도 일본내지인과 조선인합하야 오십구명이 사망하엿고그중사십여명이 조선사람이엇다는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되엇다 이제그와가튼 참변이생기든경로를 드르면이십일일 대정구(大正區)일대에 침수가되면서부근주민은 대판제철소(大阪製鐵所)공장안으로 피난을하엿섯는데 다시공장안으로 침수가되고도(高度)밀려드는 수증기가 쏘치나오면서 수천군중이 일시에피난하는 가운데 남녀오십구명이 즉사혹은 의사를하엿스며 다섯명은중상을 하엿고 십여명이부상을하엿다 이제판명된 사망자의원적과 씨명을 렬거하면다음과갓다

慶南山淸郡山淸面 趙明燮(八)
權鳳祚長男 昌錄(一)
慶南山淸郡生比良面
慶南統營邑吉野町 金文三
慶北郡咸郡咸面
慶南金海郡鳴旨面 崔元甲(二五)
文根浩 同人의妻
慶南山淸郡 金甲祚(三五)
同妻 陳次任(二四)
全南務安郡 李淮泰(三)
慶南泗川郡泗川面
慶南固城郡大可面 賈南石長女 洪鳳仙(六)
李宗福長女
慶南晋州郡□□面 申明均(元)
慶南統營邑吉野町 金又祚二女 二選(一)
慶北義城郡丹北面 金實敎(三)
慶南昌原郡東面 金熙聖(二〇)

이밧게 일본읨흥으로 서산(西山)이라는 인흥으로지내는녀자의딸권영준(權英俊)과 경남고성사람으로 성명을 알수업는모의하살먹은 어린아이도 시체가견발되엇다

이밧게다시 대정구소림정(大正區小林町)이십구번지에 거주하든충청도(忠淸道)출생손모의일곱살먹은 아들의 시체도역시새로히발견되엇다

災難中에도 弄璋弄瓦

대자연의 요구는 막지못하는것이라 그와가튼암담한 피란생활가운데서도 어머니는 애기를나엇다는 히한스러운 경사가잇다 이십륙일 오전일곱시 서궁(西宮)공회당에피란하여잇든 김원개(金元介)의 안해 최씨(崔氏)는 옥동자를나엇는데 산모와에기가 다함께건실하고 이십일일에도 대정구소림정(大正區小林町)에서 한참날리통에분비는속에서 어떤녀자가 녀아를해산하엿는데 성명과주소는 알수가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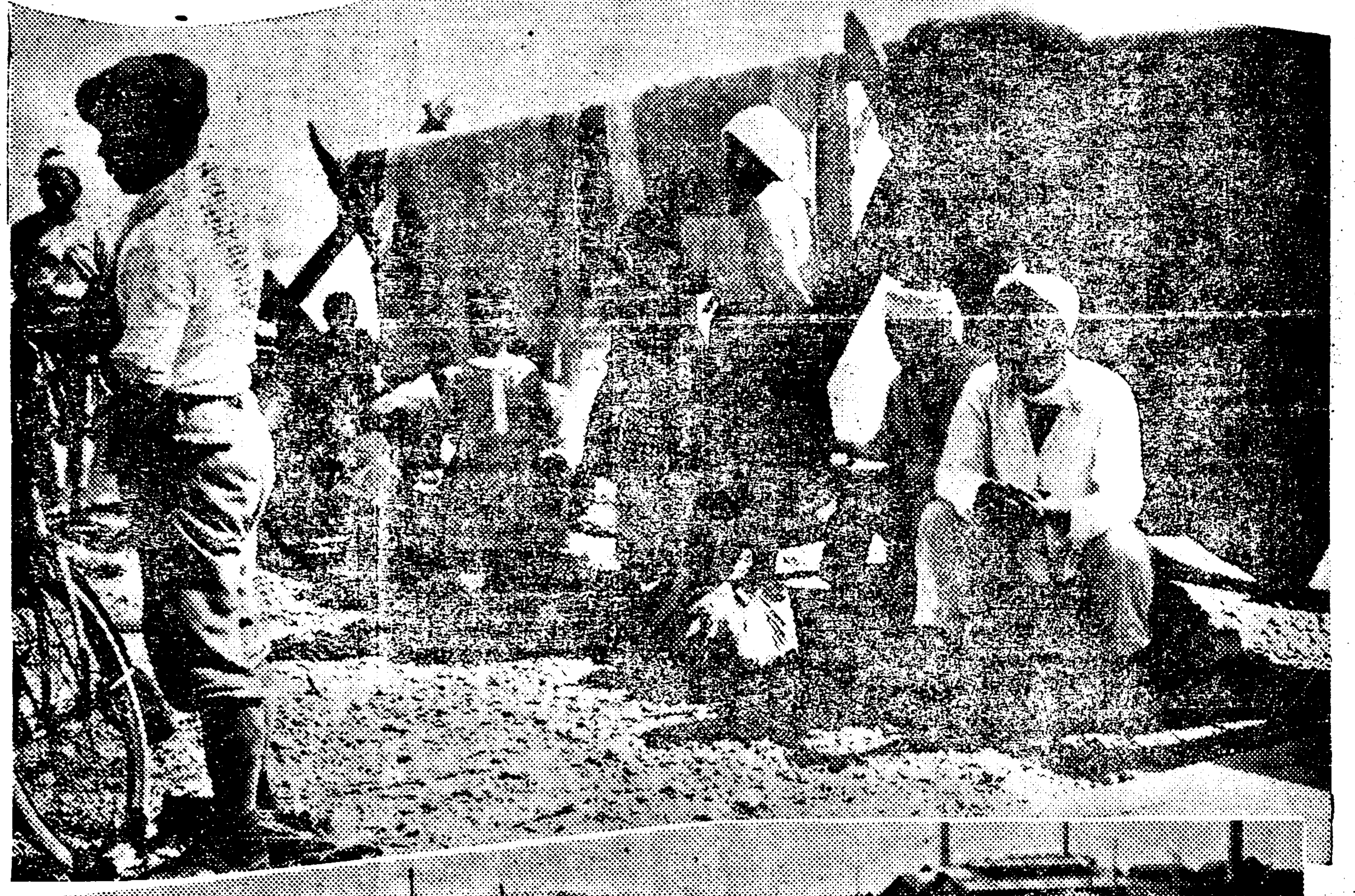
四屍體發見

이외에도주길경찰서(住吉警察署) 관내에서는 전일에두 사람의조선사람 사망자가 발견되엇섯는데 계속하야 경남동래군서면(東萊郡西面)정지영(丁芝榮)의딸옥자(玉子)(三)와 함남장진(長津郡)정수길(鄭壽吉)의예순세살먹은로모가죽은것과또주길구시곡(住吉區柴谷)에서도「빠락」이류실되는 서슴에경남의녕군(義寧郡)강수일(康守日)의딸형순(兄順)(三)과 경남사천군(泗川郡) 조명실(趙明實)(元)의네사람도사망된것이새로히판명되엇다

死亦同穴의慘中慘 父子內外等俱歿

두夫婦四父子의酷禍

대정구남혜가도정(大正區南惠加島町) 대판제철소(大阪製鐵所)에피난하엿든 사람가운데조선사람 이십여명이 사망한것이새로히 판명되엇다 함은별보한바와갓거니와 그중에도 참혹한것은 김해군명지면(金海郡鳴旨面)문근호(文根浩)와그안해(姓名未詳)창원(昌原)출생김갑조(金甲祚)로와그안해진차임(陳次任)(二四)의 두쌍부부가 한거번에죽은것과또네쌍의모녀(母女) 홍모부자(父子)가 역시한거번에죽엇다는사실이다



職場과商品浸水로 五六千人失業受難

太陽을일흔暗憺한거리에서

本社旗보고歡呼雀躍

오늘(廿七日)오후우리(洪特派員、大阪支局長金光洙、同局員朴永壽)세사람은 리재동포를위문하기위하야 본사사기(本社社旗)를달은자동차를타고 각구를순회하엿는데 그참상은 도저히형언키 어려운상태이엇다 그러한중에도 본사의 구조품분급등조고만한 성의에 대하야감사의뜻을표하며 더욱히 녀인들가운데글을아는 이들은 눈물을흘려가면서 치하를하엿다 이제지일순한 상황을 기록하면다음과갓다

◇

대판의 중공업지대요 조선형제가 만히거주하는 차화구상도정(此花區上島町)에는 삼천여명이 「누데기줍기」를영업으로 하는사람들인데 부근장옥(長屋)에 전부 침수가되기때문에 그들의생명선으로알고 모아노흔 누데기가전부침수되고업친데덥친데로 일편오십전하든 누데기갑십시오전으로 폭락이되어 그들은큰곤난을밧고잇다

◇

대정구소림정(大正區小林町)에는 일만명에가까운 조선인이거주하엿섯고 또한곳에는 일백삼십삼호의「빠락」에 륙백상십이인이 거주하엿는데 더욱히 전농도커업을일허스며 역시잡과직주지아니하는 그야말로「태양업는거리」를 현실에서 보이고잇섯다

그리고 별항의사실여명 참사의변이 이러난 대정구남혜가도정(大正區南惠加島町)에도「빠락」의총수오백호에 오천여명이거주하든조역인데 삼천여명은 누데기의포락과「빠락」의류실로그리고 이천여명은 중공업이정지된때문에 실업상태에잇서 큰곤란을밧고잇다

救護品을滿載하고 飢餓巷을東西驅馳

染病患者百餘人發生

【二十七日 大阪에서本社特派員洪鍾仁發電】 폭풍우가지나간 대판일대에는 이십오일밤이래 재차로 한비의엄습을바든이후로 의외재변에놀란곳 련일 피곤한남어지 더욱이식사와 거처의절생이상궤(常軌)를일흔등여러가지빌미로전염병이크게류행하고잇다 대판부의생마에서는 이십륙만의 구호반을 각처로 출동식혀구호중이나 재민는만코 구호의손은 적어서 긔대하는바의원활한 성적을엇지못하고 이십륙일밤까지에만도 장질부사(腸窒扶斯)환자오십삼명과 적리(赤痢)환자오십명이 발생하얏는데 그중에도 조선인리재민들은 그지역이 위생설비의 부족한곳이오 따라 로천긔거(露天起居)의 협의가만흔데 구호반의 손이넉넉지못한곳은 질병의구호 보다도 식량 사공급의구호 조차빠르지못한바가 잇서그협편이 실로밥아니이다

우리사의 구호반에서는 자가용의「트럭」을가저매일신문이나조일신문을 제하고는 아모도엇지못하도록 극귀극난한「트럭」을 수삼개구하야 가지고식량을 실고조선인 재민들을 차저다니며 구호분주중이다

西門署狂犬注射

부내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동서에서 오는시월이일 오전열시부터 오후네시까지 관내의 사견(飼犬)전부에게 광견예방주사를시행한다더라

朝鮮語講習會

시내인사동(仁寺洞)에잇는조선어학연구회(朝鮮語學硏究會)에서는 박승빈(朴勝彬)씨를 강사로 오는십월삼일부터 십삼일까지매일오후일곱시반부터아홉시까지 시내원동(苑洞) 휘문고보(徽文高普)에서조선어학강습회를개최한다는데 청강을 희망하는사람은 십월삼일까지 서면、변명직업을서면 또전화(光化門九七九)로통지하기를 바란다고한다

◇仁峴公普運動會

시내 인현공립보통학교(仁峴公普)에서는 이십구일(토요일)을택하여 오전여덟시부터 동교교정에서 추기운동회를 개최하게되엇는데 당일비가오면 십월삼일로 연기한다고 한다

往十里主日校 懸賞童話大會

시외왕십리 유년주일학교 에서는 제이회연합동화대회를 이십구일 오후일곱시반부터 동교회에서 개최하리라는데 참가한 주일학교는다음과갓다 ▲龍山主日學校 ▲光熙門主日學校 ▲新堂里主日學校 ▲杏堂里主日學校 ▲新設主日學校 ▲淸凉里主日學校

豆腐장사負傷

시외 숭인면안암리(崇仁面安岩里)홍순회(洪順和)(三)는 이십칠일 오전여섯시 사십분경에 자전거를타고 동대문을향하야가다가 시내창신동 사백팔십구번지압에서 두부를이고가든 하왕십리(下往十里) 박씨(朴氏)(六)를 뒤로부터치어 전치사일간의부상을당하얏다

日比國際電話 廿九日에開通

【東京電話聯合】 일본과비률빈(比律賓)간의국제전화개통식은이십륙일오전열시에동경중앙전화국응접실에서거행하엿다 상차제상(床次遞相)의축사가잇슨후 저편으로부터는 비률빈총독「프랭크마ー피」씨의축사가잇섯다 통화료금은 삼분간에 삼십오원으로서 시간은오전여덜시 부터 오후열한시까지라한다 「자바」(爪哇)와의개통은저편의 희망으로 한달지연 되엿는데통화료는삼분간륙십원이라한다

奔騰하는白米價

政府米保有量准少와關西災害로

廚房에도影響不少

지난오월이래로 오르든 시세이든미가(米價)는류월중에이르러 정부미(政府米)와 제일회 불하발표로 조곰식 숙는시세엿스나현품이 넉넉지못하야 갓금그사이에도오르는머리를숙이기어려운형세엿스나 수시하야 불하하는정부미의 불하로 간신그상태를계속하야오든바 이달에 들어서는 정부미가 감소되엿슴시기를타서 천후불량으로 흉작예상등의강재(强材)가잇서 차츰오르든중에 이번대판신호 등지의재해도인하야 아연시세는 폭등하야 현미시세가 거번의이십이원륙십전이든것이 이십사원 삼십전으로 일원칠십삼전이나 올랏스므로 시내각 공설시장에서는 이십칠일부터 백미시세를 올리엿다 즉다마금(多摩錦)특등백미는 일승키로에대하야이십전이든것을이십전오리동일등미는십구전이든것을 십구전오리보통일등백미는십팔전오리든것을십구전으로각각오리식올리엿다

市內觀音堂床下에 腐爛된變死體轉轉

昨日若草町에서行人이發見

獵奇百퍼ー센트의怪事

이십칠일 오후세시경에 시내림정(林町)일백사십륙번지 송전정명(松田正明)이라는 사람이약초정(若草町)에잇는 약초정관음당(觀音堂)구내를 지나는데 이상한악취가 몹시남으로수상히 생각하고 헛간마루바닥을뜻고보니 의외에도 사람의시체가 그밋헤잇는것을 발견하엿다 그리하야 즉시소관본정서에고발하엿는데 동서원이 현장에출장조사한결과 외상은업고 양복을입은 남자의시체인데 살이대부분썩어 얼골과년령을 추정할수도업스며 신원도 소지품이업서 알수가업는데 이십팔일아츰해부키루되엿다

大阪災地에서活動하는 本社救護班과罹災兄弟

(上右)로부터 救濟品을滿載하고 出動하는 本社救護隊、大阪市西淀川區大和町 朝鮮靑年會本部에서 救護品을풀어네리는 本社救護隊、死傷者가 第一만흔 外島癩保養院附近의 住居를일코 露天生活하는 朝鮮人、西淀川區津守津川岸朝鮮人部落의復興工作(本社特派員撮影航空便)

前夜에倍加한人氣 決勝快戰은今夜로

出場選手過多로戰鬪畢竟延長

아마拳鬪大會第二日

빗나는 권투조선의 패자는 과연누구냐? 영예의 월계관을 목전에두고 전일의싸홈에 승리하고 남은 각급의용자들은 절박한전긔에 위압되여가슴은 뛰고 피는소용돌아돌는다 장차전개될 이장렬한 열파피의무대는 갑작이 전경성권투팬의 시선의초점이되여 본사후원아래열린 조선체육회(朝鮮體育會)전조선『아마추어』권투련맹(聯盟)공동주최의 제일회 전조선『아마추어』권투선수권대회는 다만개전을기다리는 수천군중의 열광속에서 제이일의결전을마저서 전일보다 몃갑절의 대성황을이루엇다 이십칠일밤일곱시에 이려사적백열전의개전을고하는『공』소리가 경성운동장 특설링우에 명랑하게 울리자 수천군중으로채워진 관객석은 홀시에물을따린듯 고요해지며 긴장한 시선은 오로지휘황한 조명미트로만 쏠리고 잇섯다 푸라이웨잇체삼회전으로부터 경기는 개시되여 게임마다 물보다뜨거운 열전을거듭하야 만장관중으로 하여금 극도로 열광케하엿다 이날밤의 각급전적은 다음과가트며 당야로서각급 결승전을 행할예정이엿스나 출장한선수가 만흔관게로소정시간까지에 전부를완료치못하고 부득히 흥미진진한각급준결승또는 결승전은 금이십팔일밤일곱시부터 경성운동장령에서 계속거행하기로 되엿다

【當夜審判】=成義慶、黃乙秀、金永達、審査=李一、玄正柱、金正學、金鴻洛、計時=金德銀、成有燦諸氏

푸라이웨잇

【第三回戰】

○趙英俊(平壤) 判定 盧炳烈(朝拳)

▼兩君始終猛打戰을 演하야 當夜勝頭를 裝飾하는壯快한 一戰으로 趙君의『원투ー부로우』奏效하야 判定勝

○金裕昌(朝拳) TKO 徐廷勳(水原)

▼徐君强敵으로 攻勢를취하는듯하드니 金君悠然히이에 反擊하매 徐君二回初에棄權

○辛玖實(大邱) 判定、金明錫(朝拳)

▼兩君모다 사우스포ー로서 辛君經快한풋웍을利하야 左스윙으로攻勢에나아가니 金君이에屈치안코 應戰하야三回까지에無勝負되여 延長戰에드러가辛君判定勝

○朴春緖(朝拳) 判定、宋孝鐘(朝拳)

▼朴君의決定的펀취에 宋君二次다운되엿다가 再起하야 最後까지惡戰苦鬪하엿스나效엇시宋君判定敗

【準決勝戰】

×趙英俊(平壤) ×金裕昌(朝拳) 無勝負

▼兩君모다 푸라이웨잇의雙璧으로 判定키어려운씨ー쏘ー웨잇을演하야 延長戰에드러가서도 亦是伯仲之勢드니 아가니 無勝負되여 今日再試合을行하든지 抽籤에依하야 勝敗를決하기로되엿다

○朴春緖(朝拳) 判定 辛玖實(大邱)

▼일즉이 全日本빤탐웨잇의選手權을保持하엿든 鄭憲源(明大出身)君 코취아래자라난辛君의進境은 當夜實證의的이되엿섯다 老巧朴君의强襲을바더가며 辛君善戰惜敗

빤탐웨잇

【第二回戰】

○崔相泰(朝拳) 判定 申奭雨(水下商)

○姜秉文(仁川) 判定 崔元浩(朝拳)

▼兩君모다『피스톤』으로對戰하야 三回까지에一進一退하드니 드듸여延長戰에드러進君惜敗

○申一(朝拳) 判定 趙亨紀(朝拳)

▼申君 左右의『스윙』과『훅』으로 猛烈히 攻擊하니 趙君의『디펜스』는奇妙하야 熱戰을거듭하엿스나 申君判定勝

페더ー웨잇

【準決勝戰】

○朴龍辰(朝拳) 判定 康元根(平壤)

▼멀니平壤에서出馬한 若冠康君과 페더ー級의王者 朴君과의激戰! 朴君의自由自在한作戰에는 康君敵하기어려워 朴君悠悠히快勝

○呂在德(平壤) 判定 林昞煥(朝拳)

▼YMCA主催大會 페더ー級의覇者 呂君은 這間哈爾賓遠征에서 어든바充分한自信을갓고 敢然히 登場하니 이에應戰자는 林君一、二回에 巧妙한作戰으로나아가드니 三回에드러가 呂君의『다이나마이트』펀취를『떼디』에마저 林君二次다운되여 呂君快勝

웰터ー웨잇

【準決勝戰】

○宋在殷(朝拳) TKO 金九龍(無所屬)

▼金君未洗練된『러키ー펀취』로對戰하니 宋君의『풋웍』으로 顏面에마저 出血이甚하야 金君一回二分五五秒에TKO敗

○甘起龍(朝拳) 判定 金大均(中東)

▲甘君長身을利하야主要武器 右스트레이트로對戰하니 頑强한金君조금도 屈치안코 分하야莫上莫下의 白熱戰을 演하드니 三回까지에勝敗를 決치못하고 延長戰에드러가 金君惜敗

미들웨잇

【準決勝戰】

○金永福(朝拳) TKO 金興壽(桃化)

▼兩君『공』소래와함게猛然히 달介하야 肉迫戰을演하드니 金永君의『카운터부로우』奏效하야 金興君『그록기』되여二回初에棄權

今日決勝의對陣

【푸라이決勝】 趙英俊(平壤)…金裕昌(朝拳) 朴春緖(朝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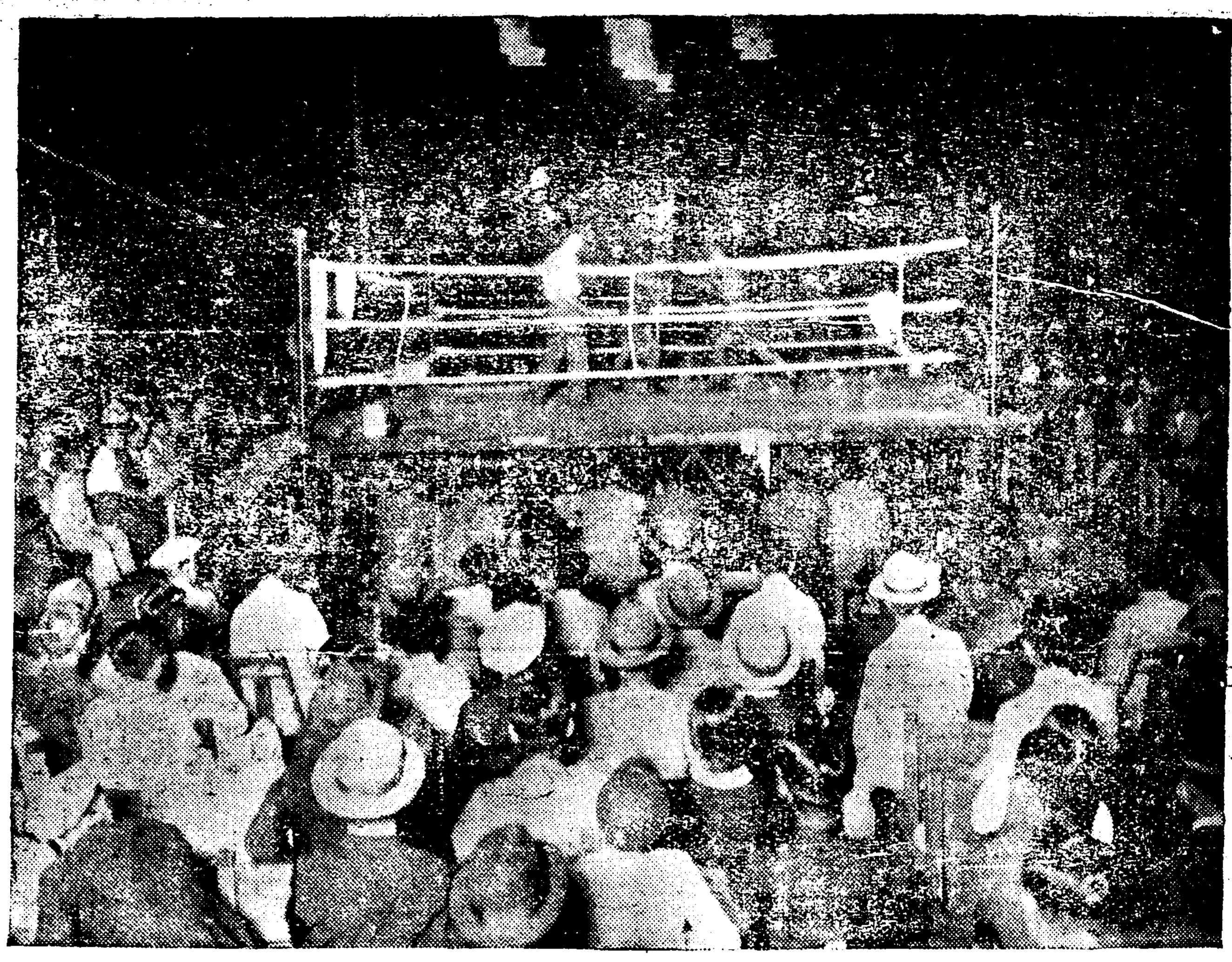
【빤탐準決勝】 崔相泰(朝拳)…姜秉文(仁川) 申一(朝拳)…趙亨紀(朝拳)

【페더ー決勝】 朴龍辰(朝拳)…呂在德(平壤)

【라이트決勝】 李鍾桓(大邱)…李奎煥(朝拳)

【웰터ー決勝】 宋在殷(朝拳)…甘起龍(朝拳)

【미들決勝】 姜昌用(浦鹽)…金永福(朝拳)



寫眞은 拳鬪大會第二夜의 白熱된 競技光景

맹낭한祈禱師

◇婦女子들을詐欺騙財 鍾路署에서取調中

수일전부터 시내장사동(長沙洞)모부호의집에는 자칭기도사라는수상한 사람이출입 하면서 그집대문깐에는 복의 신이뭇겨잇서서 그집이룡성해 가는것이라는등황당한 소리를 하고기도료로돈을 요구한다는 소문이잇서서 소관종로서에서는 이십륙일밤에 그를 인치하고 취조중인데 그는시외 창신동(昌信洞)륙백 이십칠번지의팔호 김춘강(金春岡)(三元)으로서 작년삼월중에 시내 공평동(公平洞)십일번지 김영범(金永範)이가 김제서(金堤署)에사기협의로일시인치되자 그안해 윤씨(尹氏)를보고 기도하면 나올수잇다고 하고기도료로 삼십원을 바더먹은것을비롯하야 병자나 혹는불행한일이잇는 집마다 차저단이면서기도료를 한번에 십원내외식바든것이 수백원에 달한다고 하며 그는그돈으로써 전기창신동에 첩까지 두고호화로운생활을하고 잇는것이라한다 그서에서는 방금사기죄로 계속하야 여죄를취조중이다

殺人瓦工 一年後被捉

元山에서

작년여름에시외연희면세교리(延禧面細橋里)벽돌공장에서일 을 하고잇다가 가티일을하고잇든 로동자한넘을 싸홈끄테『스콥』으로따려즉사시키고 도주해버린 범인 안학모(安學模)(三〇)는 일년남아지나 피신해다니다가 지난 이십오일 원산(元山)모벽돌공장에서 원산경찰서원에게 붓잡혀서 이십륙일서대문경찰서로호송되여왓다

女給을戀慕코 父印僞造詐欺

仁川署에被逮

【仁川】 부천군소사면(素砂面)오류리(梧柳里)사번지 최길상(崔吉祥)(二四)은 부내룡강정(龍岡町)칠십일번지 김규환(金奎煥)(三六)과 공모한후경성으로가서 전긔최길상의실부 최영호(崔永浩)의인장을위조한후 인천으로와서 부내모부호에게 전기최영호의 시가삼천원가량의 토지를 이천오백원에매도키로 계약한후 계약금으로오백원을 령수한후 부내룡강정 일백사십륙번지김계월(金桂月)(二六)의집에서 호유중에 작이십륙일 소관서원에게 체포되엿다는데 위조한동긔는 전긔김계월에게 사랑의보금자리를 맨들랴고 한것이라는바 그외에도부정 매매한흔적이잇서서 방금 엄중취조중이라한다

一萬圓을起債 水産棧橋新設

仁川府會에서決議

【仁川】 지난이십륙일오후사시부터 동회의실에서 부회를개최한바 각계경사위원의 보고가잇슨후 전번에첨회되엿든 수산잔교(水産棧橋)건설움절의합입만원긔채를 만장일치로 가결한후 출납검사위원오씨를 선거한후무사폐회하얏다한다

出納檢査委員 金秉奎、紳宵、佐藤、村田、後藤

二十七日より堂堂大公開絶對日延無し 十年に一度心の扉を叩くフランス名畫!! 上映時間 普通日 晝部十二時四十分より 夜部六時五十分より 日曜、祭日、第一回十二時第二回三時二十分第三回六時五十分 上映順 1短篇ニュース 2獨逸トビス特作 監督リヒアルド・オスワルド 主演ロヂア・ウィーク ▲伯爵令孃 九卷 秋鏡の花匂ふハンガリアの莊嚴讃で我等がウイークのラブロマンス! 之は世界に名高きの名オペレッタの映畫化 3佛ヴァンダルデウラック超特作日本版 監督ジュリアンデュヴィヴィエ 主演ロベール・リナン少年 ▲にんじん 九卷 野の若草が生崩えて綠が美しく白壁に照り映える南フランスの平和な村! 詩に充たされた田園に生れ乍ら憐れにも心いじけた不幸の少年─にんじん! 果して少年であり少女であった 人へよ子を持つ父であ、母である人人よ一九三四年最高の名畫『にんじん』の上映を一度は必ず! 浪花館

遂廿六日大公開 待望の國策映畫第二陣!!秋映畫界に突如封切!!堂堂湧都封切 三週間續映の紀錄をなせる問題の『消防官の血涙篇』映畫!! 後援 京城消防署 朝鮮消防協會 京畿道聯合支部 朝鮮消防協會 內務省・警視廳後援 新興キネマ超特級國策映畫 第二篇 消防手 原作 竹田敏彦 脚色 畑本秋一 撮影 中山良夫 監督 アポ坊城恭長 島耕二・森靜子・月田一郎・中野かほる・淺見健二(京城出身)競演 助演 見明凡太郎・沖悅見・浦辺粂子・江川なほみ 新興キネマ初夏超特級時代劇 原作 竹井諒・西鐵平 監督 押本七之輔 水戸黄門 松本泰輔・小金井勝・阪東扇

大部・松本田之郎 主演 衣笠淳子・五十鈴桂子・瀧鈴子 毛利峯子 助演 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フランシスマーティン監督 ヒヨツトコ夫婦 アリスンスキプウオース主演 ペービイレロイ 永樂町 電本三二 中央館 九月二十七日から ─日曜月祝祭日은三回興行 一九、三三年度佛蘭西藝術賞獲得의名畫佛蘭西판탐티다그製作

쥬ー르、루 나ー르原作 少年哀傷篇 홍당무 一名紅髮 全十卷 쥬리안、듀베베、聞色監督 天才少年名優로벨、리난君主演 南佛어느平和한마을!世上에모든것은따스한봄빗을따라무럭무럭자라건만 可憐한『홍당무』는왜이다지도 기름보고자라는지! 남가티父母를모시고잇스면서 가티愛情을못밧고지나는『홍당무』에게 그리고父母를섬기는어린이들에게 큰教訓을드릴것입니다 少年映畫의傑作! M・G・M社超特作 살、옷드氏、監督

青春의戲弄 全九卷 구락크、케블 主演 진 허ー로 主演 仁寺洞 電光三三 朝鮮劇場 九月二十六日밤부터大公開 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文藝悲劇 와ー너브러더스社超特作映畫 원다미야夫人의扇 全八卷 監督 에룬스트、루빗치氏 主演 로날드、콜맨氏 名監督의名技名俳優에다가文藝映畫界의大傑作을보시라

◇獨乙우파社超特作映畫 探偵大活劇 달츄후 全七卷 監督 FB룸노ー氏 主演 애밀야닝크스氏 이映畫도名監督의名優잘아시는 야닝크스氏力演을보시라 ◇米國토라이안글社超特作映畫 冒險活劇 快傑쏘로ー 全六卷 主演 다그라스훼방크스氏 快男兒로有名한다크의活躍을보시라 桃花劇場 黃金町 電話本局一三三三

三南水害義捐金品

▲本社接受＝二十七日午後五時까지整理分▼

現金累計 三萬五千六百六十二圓七十五錢

物品累計 七萬九千一百八十點

在神奈川縣南朝鮮水災救濟會 (第二回分)

一金二百六十二圓四十八錢

[illegible]

(續) [illegible]

鄭周祥 二圓　金應球 五十錢　姜在遠 五十錢　金武俊 五十錢　朴沃祐 五十錢　崔在根 四十錢　池洙梵 三十錢　河在九 五十錢　宣義善 三十錢　宋須晝 三十錢　林雲出 二十錢　林李春 二十錢　朴明洙 二十錢　李能植 二十錢　吳福坤 二十錢　李奉國 二十錢　李春根 二十錢　朴倘守 二十錢　金性祚 二十錢　南基伯 二十錢　李昌吉 二十錢　韓聖律 二十錢　崔胤夏 二十錢　宋元出 二十錢　薛鍾變 二十錢　禹井九 二十錢　曺兩頭 二十錢　金士洪 二十錢　鄭顯俊 二十錢　許永守 二十錢　林鍾出 二十錢　崔連振 十錢　方述伊 十錢　朴時宰 十錢　金散述 十錢　孫東錫 十錢　朴永煥 十錢　李聖順 十錢　李孟述 十錢　金昌守 十錢　安正衡 十錢　安玉衡 十錢　諸葛吉 十錢　仙吉 十錢　中村 十錢　朴八介 十錢　朴福會 十錢

川崎市旭町婦人分

韓斗伊 三十錢　李性順 三十錢　朱命乃 二十錢　白胤先 二十錢　李順任 二十錢　河末順 十錢　金順点 十錢　金順蓮 十錢　吳南伊 十錢　許順伊 十錢　裵南伊 十錢　李海順 十錢　金遠蓮 十錢　金末順 十錢　鄭点順 十錢　許粉伊 十錢　許達連 十錢　金福達 十錢　盧先順 十錢

李表萬 十錢　金聖坤 十錢　李元林 十錢　朴点粉 十錢　朴淑子 十錢　李末順 十錢　金仙伊 五十錢　崔吉蓮 五十錢　鄭順南 五十錢　鄭南伊 五十錢

川崎市堀之內新田中活動分

金炳植 一圓　李康植 一圓　成永祚 五十錢　鄭道奉 五十錢　方在東 五十錢　林炳基 五十錢　卞福植 五十錢　金武濟 五十錢　鄭在奉 五十錢　李敬植 五十錢　韓慶鉉 三十錢　都且生 三十錢　曺在浩 三十錢　徐且岩 三十錢　林胤圭 三十錢　洪在成 三十錢　朴貴成 三十錢　崔仁善 三十錢　金德煥 三十錢　李春敬 三十錢　金原善 三十錢　辛命福 三十錢　崔龍得 三十錢　姜且星 三十錢　都鎭守 二十錢　都基祚 二十錢　林珍圭 二十錢　都鎭行 二十錢　李鍾立 二十錢　金聖三 二十錢　金翙元 二十錢　韓晩錫 二十錢　林敬春 二十錢　權德元 二十錢　洪鍾九 二十錢　李寬市 二十錢　河斗元 二十錢　姜聖岩 二十錢　金鍾炫 三十錢　尹用述 二十錢　金同介 二十錢　申相英 二十錢　金点泰 二十錢　金在悅 二十錢　金克先 二十錢

橫濱共進親睦會活動分

徐鎭玉 一圓　金順惠 一圓　金斗千 五十錢　禹還鎬 五十錢　金今奐 五十錢　朴正洙 五十錢　孫良燮 五十錢　裵三洙 五十錢　朴起化 四十五錢　曺遊煥 四十錢　尹鳳燮 四十錢

劉采夔 三十錢　金炳海 三十錢　辛政植 三十錢　曺承俊 三十錢　曺吉煥 三十錢　曺先一 三十錢　李奎範 二十五錢　李允範 二十五錢　姜仲伊 二十錢　柳三龍 二十錢　李浩鄕 二十錢　郭舜石 二十錢　張成完 二十錢　李扶龍 二十錢　朴萬永 二十錢　李鍾協 二十錢　金守介 二十錢　張德龍 二十錢　鄭岩于 二十錢　朴子根 二十錢　禹時盛 二十錢　金俊弼 二十錢　金日生 二十錢　李昌植 二十錢　金凡龍 二十錢　徐龍植 二十錢　李一權 二十錢　李八權 二十錢　文士玉 二十錢　金謂甲 二十錢　金謂敬 二十錢　池龍珠 十錢　曺五岩 十錢　白南昊 十錢　尹明玉 十錢　許斗落 十錢　曺棕燮 十錢　金基春 十錢

東京市目黑區月光町分

愼斗晟 五十錢　朴三杓 五十錢　崔寅昭 五十錢　奥村商晧 五十錢　李熙咸 五十錢　成永俊 五十錢　鄭瀅顥 五十錢　金敬文 五十錢　金洪祚 五十錢　張君玉 五十錢　金根伊 五十錢　張判乭 三十錢　韓二文 三十錢　漢玉山 三十錢　金漢喆 三十錢　李中成 二十錢　朴景伊 二十錢　申小岩 二十錢　崔文弱 二十錢　河判成 二十錢　朴順元 二十錢　崔宗鶴 二十錢　朴東華 二十錢　薛道峯 三十錢　高達用 十錢　河慶順 十錢　李六萬 十錢　崔文善 十錢　張錫鏵 十錢　孫炳秀 十錢　趙文相 十錢　李吉世 十錢　安判龍 十錢　李基萬 十錢

李基成 十錢　鄭鳳守 十錢　安相守 十錢　李成天 十錢　無名氏 十錢　車機弘 十錢　鄭福萬 十錢　崔恒鄕 十五錢　金遠煥 十五錢　金桂煥 十五錢

川崎市[illegible]分

金孝德 十錢　玄相吉 五十錢　全京分 五十錢　金大石 五十錢　金小得 五十錢　卞一禮 五十錢　裵相烈 七十錢　李大熙 四十錢　鄭三義 二十錢　金順伊 二十錢　全相烈 二十錢　權相穆 二十錢　許外先 二十錢　金春仙 二十錢　金順伊 二十錢　鄭相範 二十錢　李達伊 一錢　鄭相萬 十錢

川崎市群賓前朝鮮人活動分

孫富日 一圓　安聖才 五十錢　李千守 五十錢　田中二三 五十錢　林榮珠 五十錢　鄭奉瑞 五十錢　李千植 五十錢　任奎鎬 五十錢　金壽權 三十錢　趙春三 三十錢　安聖俊 三十錢　黃相鎭 二十錢　朴基原 二十錢　金昌河 二十錢　宋必水 二十錢　黃允德 二十錢　金相德 二十錢　尹順甫 二十錢　李龍根 二十錢　裵鳳守 二十錢　郭一用 二十錢　黃福基 二十錢　朴小德 二十錢　朴晦根 二十錢　趙良祚 二十錢　裵鎭九 二十錢　權相道 二十錢　李相道 二十錢　宋文白 二十錢　金二龍 十錢　文八龍 十錢　鄭方淑 十錢　陳在点 十錢　李根得 十錢　洪允鎬 十錢　車中執 十錢　吳松伊 十錢　朴錫烈 十錢　朴元德 十錢　郭奉祚 十錢　昔鎭元 十錢　黃德祚 十錢　鄭仁出 十錢　田世德 十錢

金鍾文 十錢　李貴春 十錢　朴判守 十錢　林正玉 十錢　李貞世 十錢　鄭五錫 十錢　趙相東 十錢　金東太 十錢　朴命石 十錢　金在煥 十錢　朴基坤 十錢　李奉三 十錢　金興植 十錢　許小文 十錢　李鳳世 十錢　金自先 十錢　鄭長福 十錢　朴潤金 十錢　金壽龍 十錢　朴在鎭 十錢　金奉祚 十錢　朴甲文 十錢　柳光輔 十錢　朴敬祚 十錢　朴漢弼 十錢　文榮道 十錢　鄭山世 十錢　羅在煥 十錢　李應俊 十錢　權五哲 十錢

藤澤、平塚分 活動者崔貴錫、金聖圭、裵昌守

活動費約五圓은 崔貴錫氏自擔

崔貴錫 一圓　崔貴錫氏夫人 五十錢　姜成元 一圓　裵容爽 一圓　鄭且岩 五十錢　千達權 五十錢　李相道 五十錢　鄭出伊 五十錢　裵玉川 五十錢　成春根 五十錢　崔在福 五十錢　李泰永 五十錢　朴好俊 五十錢　金雲善 五十錢　李在鎭 三十錢　金未出 三十錢　鄭萬守 三十錢　金周鉉 三十錢　壬成周 三十錢　金永榎 三十錢　徐正植 三十錢　崔炳鎭 三十錢　金泰益 三十錢　金道出 三十錢　朴哲洙 三十錢　李吋甲 三十錢　河奉三 三十錢　裵昌洙 三十錢　申熙鳳 一圓　孫秉基 二十錢　平井 二十錢　梶原 二十錢　大塚 二十錢　平山 二十錢　尹在明 二十錢　金小岩 二十錢　寺尾 二十錢　鶴炳卷 二十錢　張龍滑 二十錢　梁文 二十錢　青山 二十錢　金榮植 二十錢　南相東 二十錢　朴在鎭 二十錢　黃昌柱 三十錢　金鐵根 二十錢　李右植 二十錢

金進祚 二十錢　朴乙述 二十錢　李正守 二十錢　宣根斗 二十錢　宣根祚 二十錢　宣命祚 二十錢　宣蒙洙 二十錢　金晃圭 一圓　白泰孝 五十錢　尹俊洛 五十錢　河聖達 三十錢　金永奎 四十錢　朴在善 二十錢　金尙範 二十錢　徐京五 二十錢　金順吉 二十錢　文三達 二十錢　成永七 二十錢　金奉文 二十錢　金永元 二十錢　柳判龍 二十錢　李壹萬 二十錢　田永植 二十錢　林又浩 十五錢　鄭基錫 十錢　李成大 十錢　魯漢周 十錢　蔡二允 五十錢　池萬源 三十錢　吳銖瑩 三十錢　鄭永周 二十錢　李赫魯 二十錢　申達伊 二十錢　蔡春三 二十錢　劉鎭錫 二十錢　全漢用 二十錢　全順用 二十錢　金錫浩 二十錢　吳周鉉 二十錢　李八石 二十錢　文昌時 二十錢　尹一重 二十錢　金龍軒 十錢　蔡炳根 十錢　趙德八 十錢　尹再炳 十錢　李丙吉 十錢　朴光植 十錢　朴容健 十錢　朴魯根 十錢　朴永根 十錢　姜錫吉 十錢　魯春成 十錢　朴建根 十錢　姜相雲 十錢　尹興炳 十錢　李奎文 十錢　李康鎬 十錢　禹鍾晃 十錢　柳分吉 十錢　朴福鉉 十錢　白鍾奭 十錢　金在國 十錢　金福夫 十錢

橫濱市우리勞働者同盟活動分

吳神奉 二圓　崔壽萬 一圓　丁萬石 一圓　洪善道 一圓　吳斗泳 一圓　崔壽 一圓　杉山商店 一圓　千守善 一圓　許寅生 一圓　金東玉 一圓　鄭相龍 一圓　李秉武 一圓　金萬得 五十錢　金栢培 五十錢　吳日蔜 五十錢　車萬壽 五十錢　金根用 五十錢

金儀鎬 五十錢　卞八鳳 五十錢　李時仁 五十錢　李根末藏 五十錢　蔣興植 五十錢　金達先 五十錢　鄭海龍 五十錢　安伊仲 五十錢　金泰洪 五十錢　朴宗甲 五十錢　牧丹カフヱ 五十錢　金太奉 五十錢　金在浩 五十錢　金萬斗 五十錢　朴且俊 五十錢　金玉彬 五十錢　金松玉 五十錢　陳奉道 五十錢　尹快元 五十錢　李學述 五十錢　朴永學 五十錢　金光津 五十錢　梁貞淑 五十錢　韓日石 五十錢　金守龍 五十錢　鄭玉煥 五十錢　宋古出 五十錢　劉京烈 五十錢　白鶴允 五十錢　張鳳文 五十錢　康哲泮 五十錢　李英揺 五十錢　金伯伊 五十錢　閔熙俊 五十錢　姜雲善 五十錢　李在俊 五十錢　朴順福 三十錢　崔岩 三十錢　崔聖守 三十錢　金斗天 三十錢　鄭浩胤 三十錢　金雲波 三十錢　李圭太 三十錢　黃性權 三十錢　李泳守 三十錢　崔在守 三十錢　裵判介 三十錢　裵貞勳 三十錢　金泳杓 三十錢　尹鳳煥 三十錢　金聖道 三十錢　崔玉鍾 三十錢　蔣泰岩 三十錢　金鶴道 三十錢　孔仁生 三十錢　李善得 三十錢　李斗元 三十錢　李鍾柄 三十錢　金德文 三十錢　金南基 三十錢　金奉道 三十錢　朴善鍾 三十錢　黃達文 三十錢　李鳳龍 三十錢　金泳洙 三十錢　李泰克 三十錢　宋龍俊 三十錢　鄭南修 三十錢　金石周 三十錢　李鍾宇 三十錢　具在浩 三十錢　姜敬五 三十錢　玉井東 三十錢　鄭明秀 三十錢　朴道中 三十錢　朴瑞陽 三十錢　李慶律 三十錢　尹文俊 三十錢　張成七 三十錢　金成瑀 二十五錢　李且守 二十錢　金爲得 二十錢

朴萬守 二十錢　李七龍 二十錢　吳希烈 二十錢　金善俊 二十錢　金得覺 二十錢　吳世璣 二十錢　金六萬 二十錢　張斗銓 二十錢　魯海基 二十錢　金好得 二十錢　李贊守 二十錢　崔鳳一 二十錢　韓明雯 二十錢　金京俊 二十錢　申在德 二十錢　申榮徵 二十錢　黃雲夏 二十錢　蔡龍默 二十錢　李學壽 二十錢　李光五 二十錢　金鍾律 二十錢　金在洙 二十錢　朴元一 二十錢　黃德俊 二十錢　鄭玉蘭 二十錢　李善燮 二十錢　禹瑛源 二十錢　李官奎 二十錢　權正吾 二十錢　吳鶴守 二十錢　具彫會 二十錢　朴億文 二十錢　任成雲 二十錢　朴三秀 二十錢　殷洪基 二十錢　朴鄕杓 二十錢　鄭致根 二十錢　崔泰健 二十錢　申成鳳 二十錢　孔仁澤 二十錢　張青龍 二十錢　金德秀 二十錢　金汶澤 二十錢　金俊浩 二十錢　金萬善 二十錢　金敬五 二十錢　具永岩 二十錢　姜五德 二十錢　林君述 二十錢　蔣相春 二十錢　金相悅 二十錢　李壽乾 二十錢　成寅鶴 二十錢　安貴燮 二十錢　金學龍 二十錢　金大根 二十錢　鄭又玉 二十錢　陳基玉 二十錢　姜周燮 二十錢　金在日 二十錢　金明玉 二十錢　張昌南 二十錢　姜岩伊 二十錢　朴周秀 二十錢　田學必 二十錢　鄭觀周 二十錢　金鍾德 二十錢　尹以培 二十錢　金二童 二十錢　曺永基 二十錢　李成道 十六錢　崔順赫 十錢　金光春 十錢　池學成 十錢　宋相億 十錢　韓岩雨 十錢　陳允祚 十錢　金小守 十錢　金漢煥 十錢　李昌鎭 十錢　俞壬淳 十錢　金鍾奎 十錢

孫貴守 十錢　張今得 十錢　丁奎鍾 十錢　李錄岩 十錢　金鍾瓚 十錢　崔龍基 十錢　金信純 十錢　李鉉英 十錢　李鉉洙 十錢　禹成七 十錢　林成祚 十錢　孔奉錫 十錢　曺炳五 十錢　李起洙 十錢　孫良燮 五十錢　辛政植 三十錢　曺遊煥 三十錢　曺先一 三十錢　李炳植 二十錢　金甲得 二十錢　禹時盛 二十錢　朴子根 二十錢　曺吉煥 二十錢　曺承俊 二十錢　金俊弼 二十錢　曺三岩 二十錢　金方燮 十錢　曺五岩 十錢　朴起化 五十錢

關東消費組合聯盟 多摩川無產者消費組合活動分

李益守 二圓　西光會 一圓六十錢　金命苗 一圓　柳星三 一圓　崔漢喆 一圓　林尙榮 一圓　朴環夏 一圓　金大濟 一圓　朴在敬 一圓　林鍾健 一圓　禹三順 五十錢　無名氏 五十錢　申鉉張 五十錢　李成儀 五十錢　朴在益 五十錢　李燦基 五十錢　崔守鳳 五十錢　李鶴千 五十錢　宣必先 五十錢　李元道 五十錢　安昌釣 五十錢　無名氏 五十錢　金淑濟 五十錢　申英生 五十錢　金張洛 五十錢　金辭奎 五十錢　安承文 五十錢　李斗彦 五十錢　諸禹活 五十錢　柳肇植 五十錢　柳德植 五十錢　朴在德 五十錢　山田 五十錢　宋華伯 五十錢　李善燮 五十錢　成煥鳳 四十錢　都相康 三十錢　崔小鳳 三十錢　楊益守 三十錢　韓文九 三十錢　鄭道乙之 三十錢　朴乙守 三十錢　崔順贇 三十錢　朴又性 三十錢　權三鳳 三十錢　朴好星 三十錢　禹澤鉉 三十錢　宋載浩 三十錢　李炳龍 三十錢　朴美東 三十錢　朴鶴培 三十錢　殷元杓 三十錢

金鍾謙 三十錢　金贊郁 三十錢　宋守昊 三十錢　孔点石 三十錢　金末錄 三十錢　朴鳳道 二十錢　宋守敬 二十錢　姜再成 二十錢　尹方九 二十錢　朴京海 二十錢　鄭八岩 二十錢　鄭命岩 二十錢　都德弗 二十錢　徐有寬 二十錢　鄭三德 二十一錢　成鳳龍 二十錢　朴錫伊 二十錢　金盛魯 二十錢　都善凡 二十錢　朴泰元 二十錢　朴泰守 二十錢　金永鎭 二十錢　李石祚 二十錢　裵聖大 二十錢　張京道 二十錢　金根守 二十錢　金一龍 二十錢　朴一石 二十錢　禹永龍 二十錢　金成奎 二十錢　姜三萬 二十錢　朴汶植 二十錢　鄭順學 二十錢　徐德鉉 二十錢　李元先 二十錢　馬元仲 二十錢　金山根 二十錢　李成根 二十錢　朴命達 二十錢　趙漢宗 二十錢　金千壽 二十錢　朴海順 二十錢　崔鳳林 二十錢　都德方 二十錢　張漢郁 二十錢　朴藏大 二十錢　李成雨 二十錢　周永才 二十錢　朴喜俊 二十錢　朴泰根 二十錢　姜珍鎬 二十錢　徐周錫 二十錢　尹道介 二十錢　金道伊 二十錢　姜丁水 二十錢　朴永水 二十錢　盧在成 二十錢　金守業 二十錢　曺岩于 二十錢　孔仁率 二十錢　金東安 二十錢　梁茂隱 二十錢　李守完 二十錢　金且相 二十錢　奇乙出 二十錢　朴石伊 二十錢　無名氏 二十錢　鄭釗德 二十五錢　趙永浩 十五錢　張永弘 十五錢　金學伊 十五錢　車永奎 十一錢　鄭述伊 十錢　金德守 十錢　李春根 十錢　具方佑 十錢　鄭仁俊 十錢　盧應三 十錢　李又龍 十錢　姜必珠 十錢　羅在善 十錢　申判伊 十錢

宋洛載 十錢　許八十 十錢　原田 十錢　尹啓秀 十錢　高鍾判 十錢　龍岩 十錢　李夏南 十錢　禹點順 十錢　白映鎬 十錢　李明學 十錢　黃石斗 十錢　池石奉 十錢　朴龍伊 十錢　鄭生日 十錢　南生 十錢　金喜俊 十錢　河口定吉 十錢　朴永春 十錢　鄭士益 十錢　鄭敬順 十錢　鄭道化 十錢　鄭相鎬 十錢　鄭三春 十錢　海野 十錢　權化碩 六十錢　金元生 五十錢　橫山 五十錢　野村 五十錢　金永洙 五十錢　李聖化 五十錢　朴春默 五十錢　申大龍 五十錢　金來秀 五十錢　禹又俊 五十錢　李安基 五十錢　孫福述 五十錢

現金小計 二百六十三圓四十八錢

宋學有 五十錢　朴進世 五十錢　朴道華 五十錢　康仁建 五十錢　許允植 五十錢　李世善 五十錢　羅三弘 五十錢　無名氏 二十錢　金介萬 二十錢　李圭鎭 二十錢

川崎平間靑年會活動分

金燦奎 二圓　蘇萬植 一圓　李相斗 一圓　鄭相龍 五十錢　表述伊 五十錢　李熙馥 五十錢　朴萬伊 五十錢　金重培 五十錢　朴應祥 三十錢　康元薰 三十錢　金昌周 三十錢　朴錫基 三十錢　金鳳龍 三十錢　章萬福 二十錢　張春子 二十錢　李春得 二十錢　玄光來 二十錢　金萬彦 二十錢　金奉烈 二十錢　玄相述 二十錢

鶴見瀨田夜學生數名 二十五錢

映畵音樂의밤 收入金(費用除外) 四十四圓五十錢

探偵小說 艶魔 (91)

徐東山 作　金奎澤 畵

실人족(失足)(3)

허철의 말을 들으면 그부친은 병중에 화가나면 어린애처럼 약을 먹으려 하지아니하는 괴망스러운 버릇이잇다는것이다。

허허 웃고나서 영호는 말을하엿다

『이사람아 이것도 필요가잇서 하는 노릇일세……한데 대관절 급한일이란무엇인가? 또 애인이나 차저달나고 떼나 쓰잔켓나?』

『이걸보게』

허철은 책상설합속에서 속달편지한장을 끄내여 영호를 준다。

청경보아도 그것은 요전것파가튼 협박장이다。

『번번히 안되엇지만 암수업는사정이니 오천원만 요전파가치 오늘밤 새로 한시에 한강건너 한강신사 드러가는길로 가지고 오시오 만일 병석에서 일지못하겟거든 아모 내용이야이를하지말고 자제를 식혀도좃소 그곳에서는 역시 학생복에 사방모자를쓰고 휘파람으로 수심가를 부르는 사람이저편에서 올테니 말업시전하게하시오』

사연은 이뿐이다。봉투외면 부인을보니 광희문우편국에서 열한시에 마즌것이다

『자네 어르신네가 아실것이냐?』

영호는 편지를 보고나서 물엇다

『아-니 말을 내가하여서……하시는 다 내가할것이겟』

『그러면 돈은 가지다 주어야지요』

『돈이 그러케 좁하가든 그아이를 저희나 남게 가섬하겐』

『그래로 어서들이 그날밤이나오여……』

『염녀말어……염녀말고 자네사진이나 멧장 내놋켓나』

허철은 영문몰엇지 모르겟다는듯이 앨범을 내어놋는다

영호는 그중에서 정면으로 백인것 일편으로 백인것 반편으로백인것 정면을 백인것해서 허철의사진넉장을떼어포켓속에집어너엇다。그는 이러서면서 허철에게 당부를하엿다。

『오늘밤 세시안으로 내가오든지 무슨 기별 하든지하든세……그런데 무른그때리야 업겟지만 만일내가세시까지 오지도안코 소식도업거든 자동차한대로 미리준비해 노앗다가 자네 어르신네를 뫼시고 인천형에도호델로가서잇게……병환중에좀 무리겟지만 꼭 그러케해야하네』

『아버지가 가실려고 하실가』

『그대로 잇다가는 큰일이난다고 좀 속이거그려……그래거기가서 내가 무슨 기별을할때까지 꼼작말고 잇서야하네……만일 어르신네가 안들으시거든 강제로 떠메고라도 가야해?』

허철은 무슨 곡절한 예감이드는지 불안한빗치 얼굴에 떠올는다。

『아모 염녀말어요 염녀말고 식히는대로만해요……지금이만에 모험을 아니하고야일을 성공할수잇나!……그러고깐바 이젓군……오늘밤열두시반쯤되거든 자동차를불러타고 한바퀴 휘 돌아서 한시반쯤 집으로 도라오게 그차를 그대로집에두게서가다리게 하는게 조켓지……엇지말어 응?』세시……그러고 아버지 모시고나갈때엇분으로나가고……』

허철은 고개를 끄덕어린다 그리고 그는 영호의 눈치를 살피다가 주저하든끗테 뭇는다

『참 저! 향초 어떠케그뒤에 소식이나 잇나?』

허철의 갈득이나 야윈뭄이 더욱 홀쭉해지고 우울한 그의표정은 원인이 향초를 놋치고기다리는데 잇는것이다

영호는 이러케만 되어가면 한가지 연극은 성공에 갓갑다고 생각하엿스나 거트로는 그저 흔연하게 방금 그방면으로도 활동하는 중이라고 대답하엿다。

『자네만 잇네』

허철은 맥업시 말을한다

『옹녀넘겨……지금쯤 어데서인게 자네를 출행으로손수건에 수를 노코잇는지도 누가 아나!』

『그럿스면야……』

『자네는 급한일을 당하면 너무 허둥대니 오늘저녁은 좀침착하게 일을 하게』

영호는 신신히 부탁을 한 뒤에 허철을 작별하고 드라오는길에 경서밧을 맛긴 병원에들너 그를 회상덜좀 일려거에 데어가지고 집으로 도라왓다。

영호가 지리하게 기다리는 해가 지고 집안식구가 식당방인 향초의 방에 모혀 저녁을 먹으라고 하는데 주먹코 행중원 귀큰처가 헐떡하고 달려왓다。